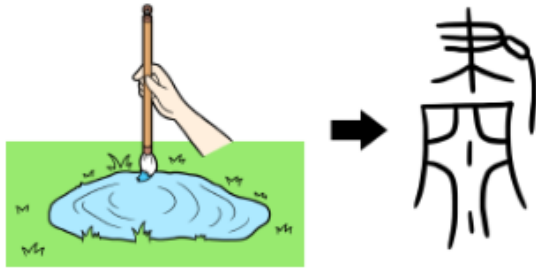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肅

엄숙할
숙

肅자는 '엄숙하다'나 '정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肅자는 肅(붓 올)자와 淵(못 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淵자는 연못을 그린 것이다. 연못은 물이 정체된 곳으로 적막함이 느껴지는 장소이다. 이렇게 적막함을 연상케 하는 淵자에 肅자를 결합한 肅자는 경건하고도 엄숙하게 글을 써 내려간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肅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엄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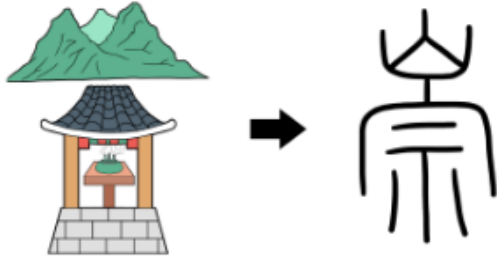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崇

높을 숭

崇자는 '높다'나 '높이다', '존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崇자는 山(되 산)자와 崇(마루 종)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崇자는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을 그린 것으로 '으뜸'이라는 뜻이 있다. 崇자는 이렇게 '으뜸'을 뜻하는 崇자에 山자가 결합한 것으로 '으뜸인 산' 즉 '크고 높은 산'을 뜻한다. 다만 지금의 崇자는 웅장한 산의 기백에 비유해 '존중하다'나 '우러러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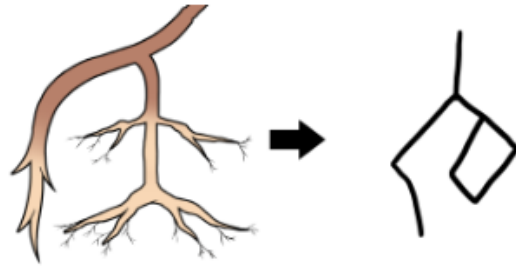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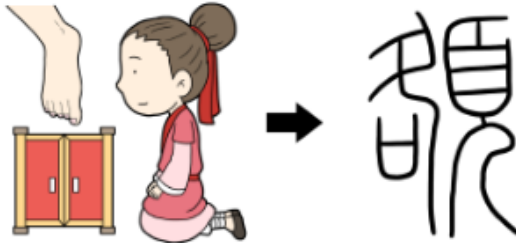
氏

각시/성씨(姓氏)
씨

氏자는 '성씨'와 관련된 한자이다. 氏자와 관련된 해석은 다양하다. 갑골문에 나온 氏자를 보면 𠂔 사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땅속에 있는 뿌리 열매를 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종족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게 뜻이 제각각인 것은 氏자와 결합하는 글자들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해석은 나무뿌리를 그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혈통도 나무뿌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줄기에서 시작되어 점차 확산하기 때문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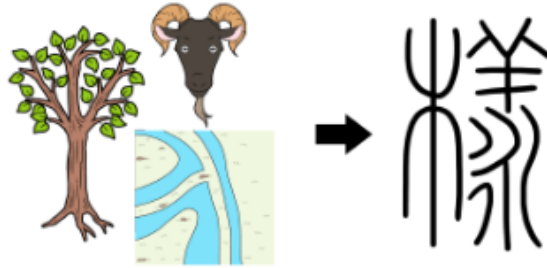
額

이마 액

額자는 '이마'나 '머릿수', '수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額자는 客(손님 객)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客자가 아닌 各(각각 각)자가 들어간 額(이마 액)자가 '이마'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額자는 본래 사람의 '이마'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하지만 후에 '머릿수'를 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額자는 '각각(各)의 머리(頁)'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 各자가 客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樣

모양 양

樣자는 '모양'이나 '견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樣자는 木(나무 목)자와 彡(강이 길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彡자는 강줄기가 양 떼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樣자는 본래 나무에 열린 열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모양'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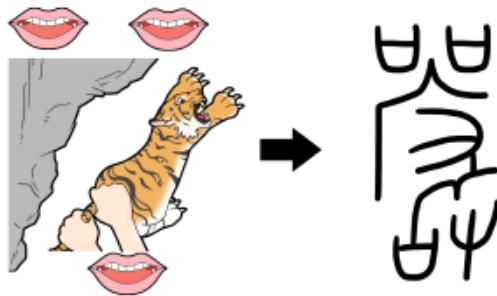
樣

소전

樣

해서

회의문자①



嚴

엄할 엄

嚴자는 '엄하다'나 '혹독하다', '지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嚴자는 敢(감히 감)자와 厂(기슭 엄)자,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敢자는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감히'나 '함부로'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세가 당당한 모습을 그린 敢자에 口자가 더해진 嚴자는 기세가 대단한 사람이 말을 내뱉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기슭을 뜻하는 厂자는 단지 발음요소일 뿐 의미는 전달하지 않는다.

嚴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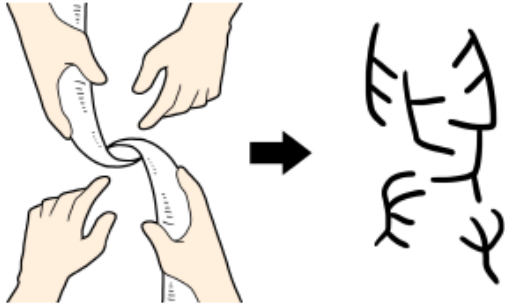
嚴

소전

嚴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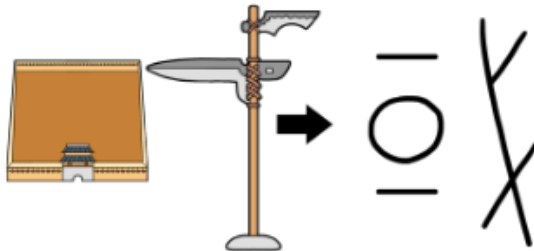
與

더불/줄
여:

與자는 '주다'나 '더불다', '같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與자는 舛(마주들 여)자와 与(어조사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與자의 금문을 보면 코끼리 상아를 서로 붙잡고 있는 舛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상아를 건네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與자의 본래 의미는 '주다'였다. 그러나 지금의 與자는 물건을 서로 맞잡고 있다 하여 '더불다'나 '같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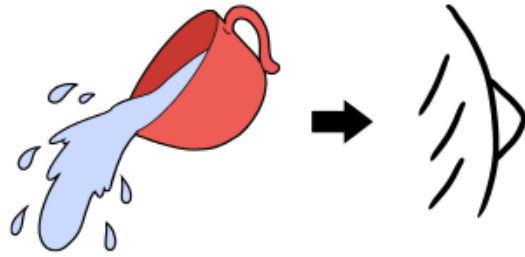
域

지경 역

域자는 '구역'이나 '지경', '나라'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域자는 土(흙 토)자와 或(혹시 혹)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或자는 창을 들고 성(城)을 지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본래 '지역'이나 '나라'라는 뜻은 或자가 먼저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或자가 '혹시'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口(에울 위)자를 더한 國(나라 국)자는 '나라'를 뜻하게 되었고 土(흙 토)자가 더한 域자는 '영역'이라는 뜻으로 분리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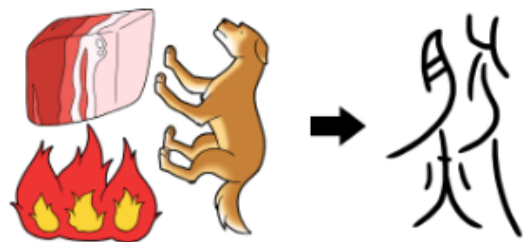
易

바꿀 역
| 쉬울
아:

易자는 '바꾸다'나 '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易자는 日(해 일)자와 勿(말 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易자의 갑골문을 보면 그릇이나 접시를 기울여 무언가를 쏟는 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그릇에 담겨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담는다는 뜻이다. 그릇에 담긴 것을 내다 버리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易자에는 '쉽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이때는 '이'로 발음을 한다.

𠂔	𠂔	易	易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燃

탈 연

燃자는 '불에 타다'나 '사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燃자는 火(불 화)자와 然(그러할 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불에 그슬리다'라는 뜻은 然자가 먼저 쓰였었다. 然자는 개고기를 불에 그슬려 먹던 습관에서 유래한 글자로 '그슬리다'라는 뜻이 있었다. 하지만 후에 然자가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火자를 더한 燃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𤇀	𤇀	燃
금문	소전	해서